

2018년 3/4분기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ISSUE REPORT)

■ 지역관광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중심으로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y Skills Council

● ● ● 목 차 ● ● ●

■ 지역관광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요약)	1
I. 개 요	3
II.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	4
III. 관광두레사업 및 전문인력 현황	6
IV. 시사점 및 추진과제	9

-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최병길 선임연구원 (02-569-6880, cbksa@hanmail.net)

요

약

□ 지역관광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중심)

□ 개 요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내국인의 국내 관광경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별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의 고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특정지역(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관광두레사업 및 6차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목적형 사업의 진행 및 배출된 인력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
- 이러한 문제해결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영위 등으로 지역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지속가능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이와 관련한 문제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관광·레저ISC의 역할을 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함

□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정부 부처별, 지자체, 관련기관을 통해 양성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농촌진흥청의 농촌지역개발리더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지자체(서울시, 충북 증평군 등), 재단 및 학계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 부처 및 관련 지자체 등에서 지역관광 관련 다양한 유형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된 인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활동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현황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체험, 기념품 판매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당 지자체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관광두레PD 및 청년PD 선정 후 일정기간 지원)
- 관광두레사업체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 기준 40개 지역(157개 주민사업체/1,163명)에서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전문인력인 관광두레PD의 경우 사업 추진 연도 2013년 1기 5개 지역 6명으로 시작으로 2018년 6기 10개 지역 10명이 선정되어 관광두레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최장 5년), 청년PD의 경우 2018년 7개 지역 7명을 선발하여 관광두레PD의 서포터 역할 및 청년 중심의 관광두레사업체 발굴에 참여하고 있음(1년 이내)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인 관광두레PD 및 청년PD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어 다른 전문인력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나 지역 및 사업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시행되는 평가에 따라 활동기간이 정해져 관광두레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함(교육프로그램 등)

□ 추진과제 및 관광·레저ISC 참여방안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추진과제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설(중앙 및 광역 시·도)
-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두레PD 활동기간 확대 및 종료PD 활용방안 모색

○ 관광·레저ISC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참여 방안

- 관광두레사업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컨설팅 참여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관련 NCS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 지역인자위(RC)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참여

I

개요

- 관광·레저ISC는 2017년·2018년도 고유사업(산업인력현황보고서, 전략분야 조사·발굴 등)을 통하여 현재 국내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이슈가 도출되었고, 그 중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한 연구가 요구됨
- 국내 관광시장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2018년 5월 기준: 1,238,021명/전년대비 26.1% 증가)¹⁾의 증가와 국민의 국내 여행경험률²⁾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워라벨(Work & life balance)³⁾이 강조되면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유로운 삶의 영위가 가능하며, 이들의 관광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별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됨
-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목적지는 서울(78.8%)을 비롯한 경기(15.6%), 부산(15.1%), 제주(10.8%) 등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국내여행 목적지 역시 수도권 중심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편중현상은 지역과 국가 전체의 관광성장을 저해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⁴⁾.
- 이러한 국내 관광시장의 편중현상의 해결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의 시설건립과 관 주도의 추진방식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의 개발을 비롯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전문인력 및 양성 및 활용(중간 조직 등)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의 부재

1) 방한 주요국가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46.1%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42.6%의 증가율을 보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동향분석. 2018년 5월 기준).

2)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국내 여행경험률은 90.1%(5.9회) 나타나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1970년대 영미권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2018년 들어 주목받고 있음(Daum 백과).

4)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시 주요 방문지(2017년 기준) 명동(61.8%), 동대문 시장(44.9%), 고궁(30.1%) 등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역시 수도권 및 대도시의 방문율이 높게 나타남(1위 경기도, 2위 서울)

역시 지역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⁵⁾.

-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관광두레⁶⁾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사업별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두레 PD(청년 PD 등) 선정(활동비 지원 등)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어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⁷⁾.
- 하지만 이러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력 사업인 관광두레사업에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등에 적지 않은 문제⁸⁾들이 발생하여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관광·레저산업계 대표기관인 관광·레저 ISC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관광두레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ISC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II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

□ 지역관광 전문인력 개념

- 지역관광활성화의 핵심인 전문인력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는 인력’이라고 정의함 (국립국어원, 2015).
- 손수정(2013)은 ‘해당 분야의 환경, 구조, 작동원리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전문적 과정을 거쳐 관련 자격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전문적 지식수준이 높은 인력’으로 정의하였음
- 이렇듯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이란 ‘관광두레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수요파악,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을 지닌 주민조직 발굴, 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광두레기업 참여 및 지속 성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⁹⁾

- 5) 물론 다양한 부처에서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 후 지속적인 지원(활동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6)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체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됨
- 7) 관광두레사업은 2013년으로 시작으로 2017년 기준 157개 사업체에 1,163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두레PD(청년PD)는 2018년 기준 약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 8) 관광두레사업체 대비 적은 전문인력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와 현재 활동 중인 인력의 전문성 미확보,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다소 한계가 발생하여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함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 관련기관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무대예술 전문인력 등이 양성되고 있음

〈표 1〉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

소관 부처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
문화 체육 관광 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과정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한국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무대예술계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 환경 변화에 맞는 무대 장치·조명·음향 등 무대기술 전공 분야의 창작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수요자 요구 및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무대예술 종사자들의 현장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창작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관련 부처	농촌 지역개발 리더 양성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하고 지역역량을 가화하기 위한 종합적·실천 지향적 리더양성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 지역 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역리더 역량배향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이해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취업 특강 및 현장교육, 취업지원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진 지역특화 인력양성 사업
지자 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사람 사이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 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충북 증평군의 농어촌마을 리더 양성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리더로서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역량을 키워 농어촌마을 운영 시행착오 최소화 및 포괄보조사업 등 정부사업의 이해 제고, 도농교류활동 및 농어촌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역리더 양성과 마을 공동체 운영 노하우 및 농촌 마을사업의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사업 정책지원이 가능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사업
기타 기관	광주문화재단	지역맞춤형 문화기획 전문인력 양성
	대전문화재단	지역문화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전북대학교	생활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축제 및 공연기획, 도시재생, 농촌문화활성화, 문화유산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리더 양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정체성 확립, 생활문화활성화 등 지역문화진흥을 견인할 전문 기획인력 양성사업을 수행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참고 후 재구성

- 관련부처의 인력 양성 사례를 보면 농촌 지역개발리더 양성 사업(농촌진흥청),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산업통상자원부)이 있으며, 지역단위 인력 양성사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충북 증평군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사업)과 그 외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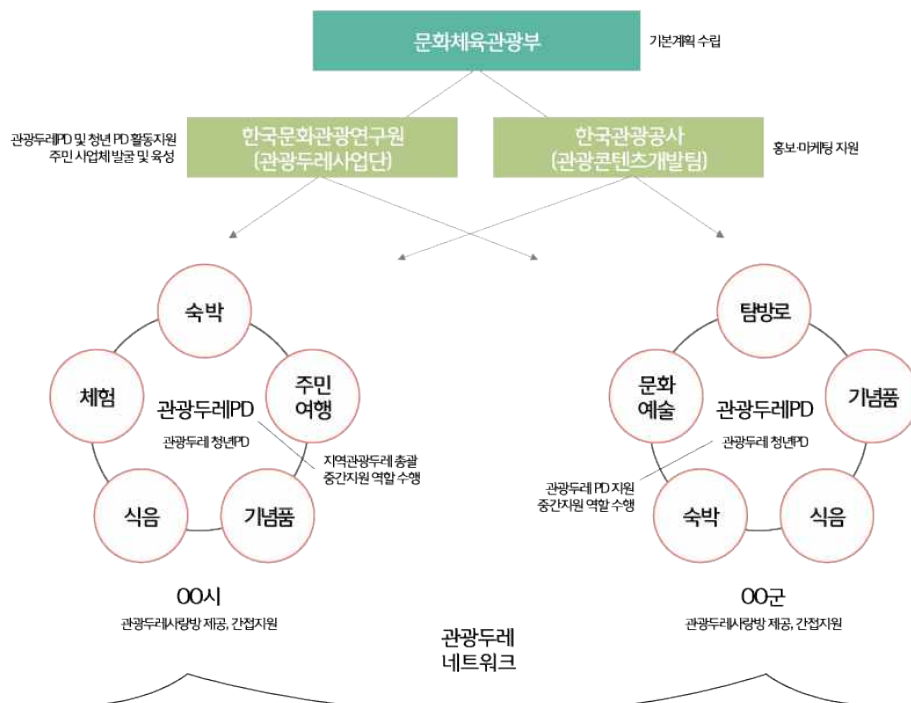
9) 지역관광 전문인력 현황분석을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III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현황

□ 관광두레사업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체험,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¹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년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재인용

[그림] 관광두레 사업의 추진 체계

-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당 지자체가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하고자 하였음
- 또한 관광두레사업 추진 인력인 관광두레PD는 해당 지역 관광두레 총괄 및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PD는 관광두레PD의 지원 및 청년 중심 주민 관광두레 사업체 발굴 작업을 수행함

10) 관광두레 주민공동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2〉 관광두레사업 추진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행정·재정적 지원
문화관광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두레PD 및 관광두레 청년PD 활동지원 ■ 주민 관광사업체 발굴 및 육성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운영
한국관광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두레사랑방 제공 ■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 간접지원
관광두레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두레 총괄(주민 관광사업체 발굴 및 조직화, 창업 및 경영개선 등) ■ 중간지원 역할 수행
관광두레 청년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의 담당 관광두레 PD 지원 ■ 기존 관광두레 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청년이 중심이 되는 주민 관광사업체 발굴

자료: 연구자 작성

□ 관광두레사업체 지역별 현황

- 관광두레사업의 지역별 참여현황은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51개 지역에서 사업체가 발굴되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관광두레사업(PD등)의 활동이 중단된 곳들이 있어 2017년 기준 40개 지역에서 157개 주민사업체에 1,163명이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관광두레사업 실적보고서).

〈표 3〉 관광두레사업 지역별 현황(2013~2018)

구분	1기(2013)	2기(2014)	3기(2015)	4기(2016)	5기(2017)	6기(2018)
부산				동구		
인천		중구			강화	
광주			동구			
대구		대구				동구
경기	양평	가평/수원	연천/이천	시흥/여주		고양
강원	양구	강릉/인제/철원	동해/홍천	춘천	양양	삼척/속초/원주
충북	제천	영동				
충남		공주	홍성	천안	아산	서산/예산
전북	부안	김제/남원/무주	익산	군산	장수	정읍
전남		곡성/순천/신안/여수	구례/해남	나주/담양	강진	보성
경북	청송	봉화/울진	안동		상주	문경
경남		남해/합천	거창		통영	
합계	5개	20개	11개	8개	7개	10개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관광두레사업 실적보고서, 재인용.

〈표 4〉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현황(2013~2017)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민사업체(개소)	12	39	42	37	27
참가 주민 수(명)	84	413	265	238	163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관광두레사업 실적보고서, 재인용.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현황

- 관광두레사업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원활한 관광두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관광두레PD, 청년PD 등)을 선정하여 지역 내 현장과 밀착해 관광두레사업의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인 관광두레PD의 경우 사업 추진 연도 2013년 1기 6명(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6기 10명(10개 지역)이 선발되어 관광두레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최장 5년), 청년PD의 경우 2018년 7명(7개 지역)이 선발되어 관광두레PD의 서포터 역할 및 청년 중심의 관광두레사업체 발굴에 참여하고 있음(1년 이내)

〈표 5〉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선발 현황(2013~2018)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개소)	5	20	11	8	7	10
관광두레PD(명)	6(1팀 2명)	26(4팀 2명)	14(3팀 2명)	11(3팀 2명)	7	10
청년PD(명)	-	-	-	-	-	7(7)

주1) 청년PD는 2018년부터 시행하였고, 7개 지역 7명이 선발되어 활동 중 임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현황

- 관광두레사업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인 관광두레PD의 연차별 수행미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역량을 2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초·심화·실행 3단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함께 공유해야 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표 6〉 관광두레 PD 역량강화를 위한 3단계 교육과정

구분	정의	내용		교육과정
기본 역량	관광두레사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관광두레PD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사업이해	정보수집 · 분석	기초
		역할 인식	문서기획	
		시간관리 · 업무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	심화
		갈등관리	컨설팅	
		관계형성	자기계발	
		네트워킹		실행
직무역량	관광두레PD의 중점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역이해	사업계획수립	기초
		여행상품 지식	세무지식	심화
		사업성 평가	재무회계 지식	
		여행상품개발	고객관리	실행
		법인설립관련 지식	목표관리	
		마케팅(홍보, 판촉)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재인용.

- 관광두레PD의 기본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2017년의 경우 총 15회의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1·2·3·4기는 총7회, 5기는 전 과정을 참여하였음¹¹⁾

IV 시사점 및 추진과제¹²⁾

□ 시사점(보완사항)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내국인의 국내 관광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관광욕구 만족을 위한 지역적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 국·내외 관광객의 경우 특정지역(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현재 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지역관광 관련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된 인력의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의 부재에 따라 전문인력 활동성이 저하되고 있음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관광두레사업은 주민주도의 관광사업체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핵심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¹³⁾ 부족 및 관련 문제점¹⁴⁾ 도출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구됨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인 관광두레PD 및 청년PD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어 다른 전문인력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나 지역 및 사업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시행되는 평가에 따라 활동기간이 정해져 관광두레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함
- 관광두레PD는 다양한 역량¹⁵⁾이 필요하여 현재 진행되는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

11) 2018년에는 선배PD활동 내용을 분야·주제별로 세분화하고, 교육 운영이 있어 내용과 단계를 더욱 체계화 해 선배PD와 함께 적극 운영할 계획임

12)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관광·레저ISC의 참여방안은 관광두레PD(청년PD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13)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문제점은 관광두레사업체 대비 적은 인력의 배치에 따른 업무량 과다(일부지역 청년PD배치)와 사전에 다양한 전문성 확보가 다소 부족하여 선정 후 현장 투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며(사전선반을 통한 교육 진행 후 현장배치 필요), 지역 및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추가 개발·운영이 필요하고, 활동비 지원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

14) 관광두레사업의 문제점은 사업참여업체 주민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관광두레PD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위한 전문가 확보 미흡, 실적위주의 평가 또한 관광두레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15) 관광두레PD(청년 PD 등) 설문조사 결과 관광두레PD의 필요한 역량으로 관광두레사업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사업체 관련 조사분석, 성공·실패사례 분석, 이해당사자간 교류촉진(문체부, 사업단, 공사, 지자체, 사업체 등), 상품 서비스 판로확대(시장

라 지역 및 사업체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이 요구됨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추진과제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설(중앙 및 광역 시·도)

- 현재 관광두레사업 추진 인력의 경우 공고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인력이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 관련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바로 관광두레사업체 추진을 위한 투입은 다소 한계가 있어,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 및 광역 시·도 차원의 아카데미를 개설¹⁶⁾하여, 지역별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진행이 필요함(중간조직 역할 수행 가능)
- 또한 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관련 학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인력확보(청년PD 등)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가 요구됨

○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 관광두레사업과 관련 전문인력은 타 전문인력과 달리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관광진흥법 등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됨(해당 지자체 매칭을 통한 활동 지원비 확보 등)

○ 관광두레PD(청년PD) 활동기간 확대 및 종료PD 활용방안 모색

- 관광두레PD의 활동비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관광두레사업체의 안정화 단계 도입 전 활동이 종료되어 원활한 사업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도가 확보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발전가능성 진단 후 지원 필요)
- 또한 기 종료된 관광두레PD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를 동 지역 및 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문체부, 문광연, 지자체 등)는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신규 인력 교육비 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관광·레저ISC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참여 방안

○ 관광두레사업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컨설팅 참여

- 관광두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두레사업체 참여 주민을 비롯한 관광두레PD 등의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전문성을

진입), 사업체 별 특화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였음

16) 최근 대전시 대덕구에서 2018년 관광두레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이수자의 경우 2019년 관광두레PD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대전 대덕구, 안양시, 음성군, 임실군, 목포시, 청도군 대상 교육진행)

확보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함

- 관광·레저ISC의 경우 관광·레저산업의 다양한 기관 및 기업¹⁷⁾이 참여한 위원회 조직으로 산업 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그 강점을 기반으로 관광두레사업 및 전문인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 또한 관광두레사업체별 컨설팅을 통하여 현재 사업체의 실태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관련 NCS개발 및 관련 신 자격체계 구축

-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관광두레PD 등)의 경우 타 전문인력¹⁸⁾과 달리 사업추진을 위한 자격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NCS를 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체계구축이 필요함
- 관광·레저ISC는 확보된 전문가Pool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에 걸친 NCS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NCS를 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신 자격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지역인자위(RC)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참여

- 관광·레저ISC는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로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C)와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관광두레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현재 관광·레저ISC는 지역의 16개 인자위와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관광·레저ISC의 중간조직 참여

- 현재 관광두레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인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중간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한 관광·레저ISC의 중간조직참여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지역인자위(RC)의 중간조직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의 지원 등을 통한 사업참여 방안 모색 역시 요구됨

17) 관광·레저ISC는 대표기관인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를 비롯한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비롯한 근로자 단체(한국노총관광서비스노련), 기업(에버랜드, 모두투어, 코엑스, 매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이비스엠버서더명동호텔 등) 등이 참여한 위원회 조직임

18)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인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바다해설가 등의 경우 국가 및 민간자격체계가 구축되어 전문인력의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